

최신 정보 신속 제공...광주교육청, 내년 대입 진학지원 시작

2월, 고3 진학부장·대입전문디렉터 발대식...3월, 대입설명회 입시안내서 제작·자체 모의평가 '광주 최종 완성' 등 개발 보급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대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4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2025 대입 수시·정시 진학지도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 2월 25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대입전문디렉터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새롭게 구성된 고3 진학부장과 대입전문디렉터들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 소속 교사 89명은 설 연휴부터 '2025 수능 문항 분석 및 수업 적용 방안 자료집' 개발에 나선다. 자료집은 완성되는 대로 모든 고등학교 교사에 배포된다. 또 2026년도 대입을 대비할 수 있는 입시안내서를 핸드북 형태로 제작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3월 29일에는 고3 진학부장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대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박막고 대학간다 기본편'의 저자 박권우 교사가 현장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2026 대입전형 설명회, 권역·대학·전형별 대입 설명회를 잇따라 운영한다.

더불어 고3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입 결과

분석 진학지도 자료집 및 진학상담프로그램 보급, 고3 진학부장·담임교사 대입 전형별 진학지도 연수, 광주진로진학지원단과 대입전문디렉터를 통한 맞춤형 진학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운영, 광주진로진학박람회 운영(7월 18-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수능 대비 자체 모의평가 '광주 최종 완성' 개발·보급(8월, 10월)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교육청 진로진학과(진학팀)는 광주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한 후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사회에서 취업·창업해 정주하는 선순환 진학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오는 3월 지역대학 입학처(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2026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4천245명 증가(2025년도 34만934명)하고, 수시 4천367명 증가, 정시 122명 감소 등이 예상된다. 수도권은 수시 7만6천678명(65.4%), 정시 4만2천693명(34.6%)이며, 비수도권은 수시 16만9천966명(89.1%), 정시 2만2천611명(10.9%)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시 24만6천644명(79.9%), 정시 6만5천304명(20.1%)이다.

시교육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집인원에 차

이가 있는 만큼 목표로 하는 대학의 권역에 따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수시와 정시의 균형 있는 대비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시는 대부분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으로 선발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므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또 수도권은 정시 수능위주 전형과 수시 학생부종합 비율이 높고, 비수도권은 학생부교과 비율이 높다.

특히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유무에 따라서 합격선이 나뉘기므로 교과성적도 중요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해야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대학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고3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고·최신 진학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N수생이 20만명 안팎에 이르며 2021학년도 이후 최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종로학원이 수능 점수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N수생은 19만~20만명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도 고3 졸업생 대비 N수생 비율, 연도별 N수생 추세, 고3 학생 수 등을 토대로 20만2762명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종로학원은 예측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개최한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는 2025학년도 N수생(검정고시 등 포함) 18만 1893명보다 11.5% 늘어난 규모다.

N수생이 20만명을 돌파한다면 2001학년도 26만9059명 이후 최대가 된다.

N수생이 20만명을 넘어간 적은 1994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모두 8번이 있었고 1996학년도 31만3828명이 역대 최대였다.

2002~2025학년도까지는 10만명대를 유지했으며 2004학년도 19만8025명이 해당 기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취업 강자' 동신대, 올해 취업률 7년 연속 광주·전남 1위

교육부 정보공시기준 69.2%...체계적 교육 맞춤형 인재 양성 성과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2025년에도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7년 연속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최근 교육부 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동신대학교 2025년(발표일 기준) 취업률은 69.2%로, 광주·전남 졸업생 1000명 이상 일반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3년 가운데 12년 간 취업률 1위 자리를 지켰다.

비결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중심 맞춤형 교육이다.

동신대는 전공, 교양 등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140여 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빈틈을 채우고, IPP형 입학수행평가, 현장실습 등을 통해 실무형 맞춤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알리미플러스센터의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 DS Star, 대정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 진로 분야별로 필요한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자격시험에 대비하고 진로 취업 직무 특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주희 총장이 직접 전체 학과별 우수 학생 간담회를 갖고, 각 학과 취업전담교수들이 학생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동기부여 하고 있다.

실무 인재 양성 과정과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들

로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춘 실무 능력을 쌓고, 분야별 전문가 특화 교육, 취업 상담, NCS 교육, 기업 탐방, 취업 캠프 등 현장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며 취업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착한 인재로 세상을 바꾼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인성교육에 집중하며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알고 함께 일하고 싶은 투게더형 인재를 양성해 산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공학과와 의공학과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부 산업계 관점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에는 정보통신공학과와 토목환경공학과가 산업계 관점 최우수대학으로 뽑힌 바 있다.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적 수준도 뛰어나다. 최근 5년 동안 한전, 한전KPS 등 빛가람혁신도시 공기업에 48명이 정규직으로 합격했고, 행정경찰 소방 군장교 등 공무원 합격 323명, 전문상담교사 공립유치원, 영양교사 등 교사 임용 578명,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보건 의료 전문직 국시에 1,840명이 합격했다.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에 지난해 3명이 합격한 것으로 비롯해 2006년 이후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학 지원을 받아 국시 준비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한 방사선학과와 의공학과는 지난해 49회부터 올해 52회 시험까지 4년 연속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교수와 학생들이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국가시험 과목별 맞춤형 개인 특강을 진행하고, 다수의 모의고사를 시행한 후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한 점이 주요했다.

군사학과는 작년 신입생 전원이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서 2014년 학과 출범 이후 모든 졸업생과 재학생이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하는 신기록을 수립, 전국 최고의 군사학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동신대는 올해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대정 프로그램', '직무특화 프로그램' 등 취업사관학교 프로젝트를 확대해 취업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동신대학교 교직원들의 정성과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서 위상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 속에 꿈을 이루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QR code and text: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송원대 최수태 총장, 권성욱 대외협력부총장 등 본부차장들이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성을 기념하고 있다. <송원대 제공>

송원대 '브랜드 명예의전당' 4년 연속 선정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최근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4년 연속 대학(철도 특성화) 부문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국내 경제·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 기업과 기관의 브랜드를 선정하며,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aSSIST) 등이 공동 후원한다. 올해는 총 8개분야 57개 기업·기관 65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송원대는 1996년 국내 사립대학교 최초로 철도경영학과를 설립·운영해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운영 공기업과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에 졸업생 500여 명이 취업하

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코레일 공채를 비롯해 상반기에만 22명이 합격하는 등 명실상부 철도특성화의 성과를 이어 나가고 있다.

송원대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라는 대학 비전과 '철도 특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을 위한 교육혁신과 인프라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송원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2022년 관제시스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인가받았다. 송원대 '철도아카데미'는 전국 사립대 최초로 차량면허와 관제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Large advertisement for insurance with text: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and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